

우리의 발명이 혁신이 되는 날



제39회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학생들의 발명품을 발굴하고 전시해 발명 의식 고취와 창의력 계발을 돕는 행사다.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발명품을 출품하면 된다.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에게 도움을 주는 발명품, 에너지 절약을 돕는 발명품,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발명품 등 주제는 자유다. 신청서와 함께 출품명과 용도, 효과 등 작품 설명을 작성해 발명교육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 원과 메달이 수여되며, 지도교사에게는 최우수 지도교사상(표창장·상금 50만 원)이 주어진다.

초·중·고등학생 누구나 | 4월 6일까지

ip-edu.net | 02-3459-2752



추천 영상 | 미국·이란 갈등 40년

1979년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을 계기로 친미 국가였던 이란이 미국의 숙적으로 변한 배경을 살펴본다. 이후 이어진 양국 갈등의 역사와 최근의 미국과 이란 전쟁을 함께 이해해보자.

출처 KBS 다큐



REPORTER'S TIP

서류부터 현물 심사까지 약 10단계의 까다로운 검증을 거친다.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차별성과 실용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시회 홈페이지에서 역대 수상작 중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 작품의 한계점을 보완해 더 발전된 방향을 모색해보자. 최근의 사회 이슈를 반영한 수상작을 참고해 일상의 불편을 해결하는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해보는 것도 좋다.



탄소중립 위한 탐구 프로젝트 도전 제15회 에너지·환경탐구대회

에너지·환경 문제를 스스로 탐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대회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 감축 프로젝트가 주제다. 학생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또는 프로젝트팀을 선발한 후, 온라인 사전 워크숍-탐구 활동-본선 순으로 대회를 진행한다.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부 장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중·고등부, 대학부 | 4월 19일까지 eeteams.com | eeteams1@naver.com



고종 황제의 전화기부터 5G까지 KT 온마루 체험형 전시

KT 온마루는 통신사 KT의 상설 전시관으로 정보통신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다. 통신 사료를 활용한 체험형 공간 '시간의 회랑', 몰입형 미디어 아트를 감상하는 '빛의 중정', 팝업 공간 '이음의 여정' 등으로 구성됐다. 고종 황제가 사용한 최초의 전화기 덕률풍부터 1가구 1전화 시대를 연 전자식 자동교환기, 시 드로잉존까지 140년 통신 기술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광화문빌딩 WEST 2층 | 상시 개방(일요일 휴관) 오전 10시~오후 6시 | 무료



미술관에서 만나는 공수레 공수거 〈소멸의 시학: 삭는 미술에 대하여〉

'삭다'라는 우리말의 의미를 담아 자연의 순환에 참여한 미술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다. 국내외 작가 15인의 회화와 조각·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환경 문제를 반영한 작품과 함께 전시와 연계한 워크숍 '초 사람 만들기', 심포지엄 '자연사와 현대미술 겹쳐 보기'도 마련돼 있어 보다 깊이 있는 전시 체험이 가능하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5월 3일까지 월·화·목·금·일 오전 10시~오후 6시/수·토 오전 10시~오후 9시 2천 원 @

